

고려대학교의 사례

Case of Korea University

남 정 민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Nam, Jungmin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jnam@korea.ac.kr

대학교는 늘 사람들로 붐볐다. 건물 안에서는 복도와 강의실마다, 그리고 건물 밖에서는 길과 작게 꾸며진 조경 및 휴식공간마다 구석구석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펼쳐지던 대학교의 풍경이다. 2020년 초에 들어서 개학을 앞두고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몇 달째 그 붐비던 대학교의 캠퍼스는 비어 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휴식과 공부를 하며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지만, 대출만 가능한 곳으로 바뀌었다. 건물 내부의 복도와 휴게공간에는 삼삼오오 수업 시간 사이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이동하느라 분주하였지만, 지금은 텅 빈 복도와 텅 빈 휴게실만 남아있다. 간간히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오가긴 하지만, 이전에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교실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면 마치 끝나지 않은 방학의 한가운데 있는 풍경이다.

다른 어느 학과보다도 학부생들의 학교시설 사용률이 높은 건축학과의 경우, 설계실은 늘 주 7일 24시간 개방을 목표로 밤낮없이 불을 켜며 운영을 해왔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2학기를 맞은 현재 이곳은 다시 열릴 날을 기다리며 문은 잠겨있고 그림자만 가득하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 상황을 지켜보며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던 이 공간은 올해



사진 1. 코로나19로 인해 9월 초에 일시 사용 중지된 설계실

비대면 시대의 대학 공간 : 고려대학교의 사례

5월부터는 신청하는 학생에 한하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밀도를 유지하면서 제한된 인원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비록 대부분 작업이 컴퓨터로 대체 되고 디지털 프로 그램으로 설계를 하지만, 건축공간이 가진 물리적 성격을 반영하는 물리적 스케일 모델을 만들려면, 그리고 자기만의 작업에 각종 재료와 책을 펼쳐놓고 장기간 집중하여 작업하려면, 그리고 친구와 선후배들과 교류하며 생각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면 혼자서 갇힌 공간에서 하기보다는 학교의 설계실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지,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학교 설계실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하였고, 결국 이전보다 훨씬 떨어진 배치를 적용하며 제한된 인원수의 학생에 한하여 설계실을 개방하였다.

코로나19와 함께 어수선했던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지내며 9월부터는 본격적인 설계수업이 진행될까 하며 기대했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9월 첫 주부터 설계실은 다시 폐쇄되고 2020년 2학기의 첫 2주는 의무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다. 상황에 따라 어찌면 첫 2주가 2달이 될지도 모른다. 디지털 시대이고, 줌 등의 화상통화 방식으로 정보전달이 가능하고 서로 얼굴도 볼 수는 있지만, 직접 앞에 두고 얼굴을 마주하며 진행되는 의사소통과 화면과 네트워크를 한번 거쳐서 통하는 온라인 의사소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좁혀질 때까지는 학생들도 교수들도 계속 서로 마주 앉아서 하던 설계수업을 그리워하며 현 상황이 끝나길 기다릴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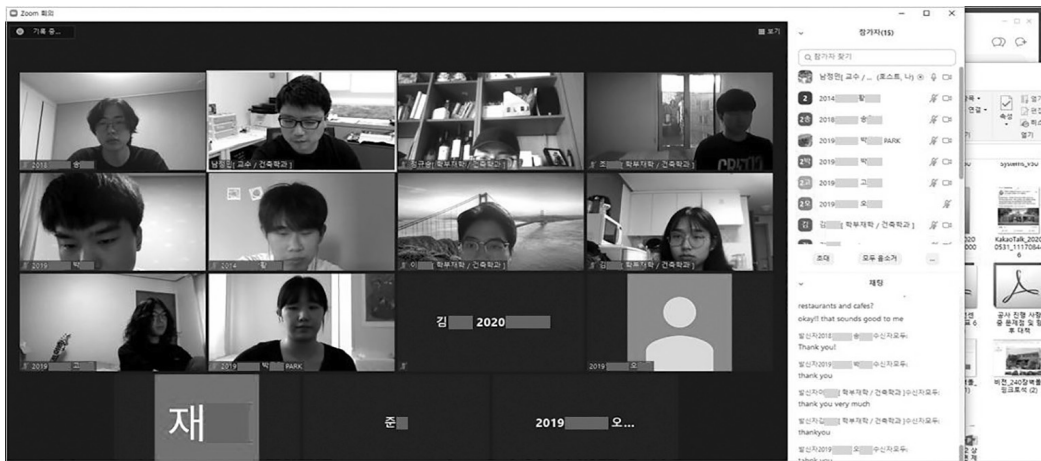


사진 2. 온라인 설계수업 진행 모습 (2020년도 2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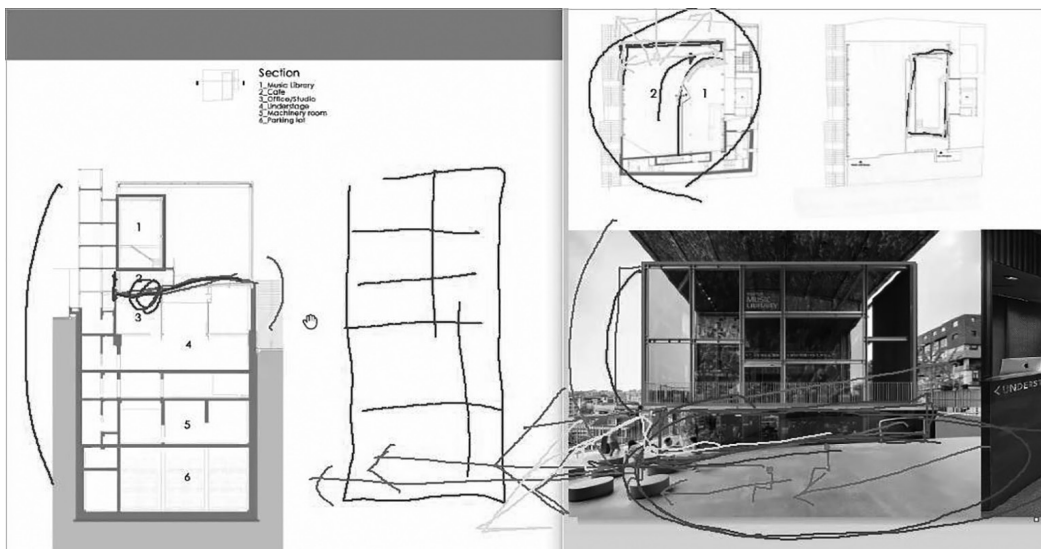


사진 3. 온라인 설계수업 중 크리틱 진행 모습